

아르헨티나, 브라질과 통상마찰 심화

-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보호무역 조치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'09년 1월중 양국간 교역규모가 약 50% 축소
 - 아르헨티나 지리통계원(Indec)의 지난 2월말 자료에 따르면 1월중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약 51%, 수입이 약 54% 감소했다고 발표
 - 이는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교역 감소세 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높이고, 브라질 또한 아르헨티나산 수입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
- 아르헨티나 지리통계원(Indec)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
 - 지난 2월의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1월의 13억 달러에 비해 27% 감소한 9억 7천만 달러로 축소
- 아르헨티나 정부는 '08년중 브라질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 50억 달러에 달해 70개월이상 계속되는 심각한 무역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산 타이어와 가공식품 및 철로 된 튜브 50가지 종류에 대해 최저 수입가격제 적용, 반덤핑 조사 확대, 수입자동허가 시스템 지연 등의 조치를 통해 브라질산 제품의 아르헨티나 반입을 규제

-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장벽 강화 조치는 현재 양국간 통상 마찰로 이어지면서 외교적 갈등을 초래중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산업부 장관은 양국간 경제통상 각료회의에서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자동차분야에서 5억 달러,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20억 달러에 달한다며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설명
- 수출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로 세계경제 위기 및 양국간 교역마찰 문제로 지난 2월중 수출규모는 지난 1월보다 36% 감소한 37억 3천만 달러에 머물러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음
- 한편,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약화시키고자 아르헨티나 수출업체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자 계획 중
- 이 자금은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며, 브라질은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을 약화시키고 남미공동시장의 가장 좋은 무역협력국 관계를 유지코자 함이 주목적

<사옹파울루 사무소 제공>